

농산물 생산~유통 총괄 조직 올해 출범

도,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계획(안)' 공개 전국 최초로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기능 기대 올해 하반기 시작... 2026년까지 3단계 걸쳐 추진

전국 최초로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생산자 중심이 돼 수급을 조절하는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가 올해 제주에 꾸러져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이하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민선8기 제주도정의 농업분야 제1공약이다. 매해 반복되는 농산물 과잉생

산과 시장격리, 산지폐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통합 정책 추진과 체계적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수급관리연합회가 설립되면 생산자인 농업인과 품목단체 회원들 스스로가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진다. 또 연합회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가 농산물 생산·유통·수급 조절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기본계획(안)은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우선 1단계인 올해는 수급관리연합회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을 시작한다. 이어 하반기부터 감귤과 당근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2024~2025년은 2단계로 수급관리기구 민간위탁 운영과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사업이 추진된다.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품목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수급조절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3단계로 농수산물 조급법에 기반한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기능과 권한이 강화된 통합 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잠정 투자 계획을 보면 올해는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수급대책 등 총 229억여 원이 투입된다. 이어 연간 270~280억여 원이 투입돼 총 1335억여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급관리위원회는 생산·유통 전

문가, 농협, 생산자 대표, 행정 등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수급관리연합회 회장 자리는 우선 품목별 회장 중 한 명이 맡게 되며 이후 전문 CEO 영입을 검토한다.

수급관리위원회는 각종 현안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들은 품목별 재배면적 조정과 함께 출하량 조정, 시장격리(산지폐기) 결정, 가공물량, 시장출하 규격을 결정한다. 주요 품목 조절에 따른 대체 품목과 휴경을 결정하고, 출하 후 소득 보전을 결정하는 등 수요·공급량도 조정한다. 특히 수급조절 미참여 농가에 대한 행정 지원을 배제하게 되는데, 이같은 사항도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연합회는 제주도 소유 건물 또는 공공기관의 잔여 공간을 사무실을 임차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서 심의됐지만 의결 안돼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보류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 카지노업 지위유승에 관한 특례,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해외 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등 33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특례와 카지노의 사전 인가를 도조례로 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이견이 제시되면서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올해 문해교육 초·중 학력 인정 23명

70~80대 연령 전체의 절반 넘는 14명 차지

제주에서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총 23명이 초·중 학력을 인정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1일 2023년도 제1회 문해교육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 학습자에게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검정고시와 별개로 학력을 취득

할 수 있는 과정으로 현재 도내에서 동려평생학교가 학력 인정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학력 인정을 받은 사람은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11명이다. 낮은 나이에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70~80대 연령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명이고 중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는 80대도 2명 포함됐다. 초등 학력 최고령은 1944년생 김화지씨, 중학 학력 최고령은 1940년생 이상임씨다.

진선희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기본계획(안)'을 공개한데 이어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국기자

제주·서귀포 7곳 '우선 초등돌봄 지역' 선정

협업체계 강화·시설확충 등 제주형 돌봄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해 우선 초등돌봄이 필요한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은 노형·삼양·아라·화북동 4개 지역, 서귀포시는 대륜·동홍·중문동 3개 지역을 선정했다.

도는 올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

자 중심의 탄력적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촘촘한 제주형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시설 임대료 지원,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지역사회 공유공간 활용, 신설 주민센터·공공시설 활용,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을 통해 맞벌이 가구 긴급·틈새 돌봄, 아픈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이동형 창의체험 프로그램, 힐링 야외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한편 현재 도내 온종일 돌봄기관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317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763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제31회 물관리 심포지엄 22~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31회 물관리 심포지엄이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최된다.

국내에서 열리는 상반기 물 관련 최대 행사인 물관리 심포지엄은 'ESG를 접목한 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수자원의 보존과 다각화,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국내 물 산업 해외 진출전략, 물과 IT를 접목한 스마트 물 산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고대리기자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228억 100만원 이상 전체의 71.5%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2월 현재(20일 기준) 22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체납자는 총 5만3732명으로 체납액은 13만1746건 228억2200만원이다. 이 중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93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163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제주시 전체 체납액의 71.5%를 차지하는 액수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3월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 자료를 분석하고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가액 수색,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경제 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함께 만드는 미래, 새로운 향을 도약” 제주대학교와 함께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유학(儒學)대학 유학지도자과정 제21기 교육생모집

접수 및 등록기간 가. 기 간: 2023.2.3.(금)~2023.3.3.(금)(토요일은 휴무일)
나. 장 소: (재)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사무실,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다. 접수방법: 본원 및 향교재단 방문 및 팩스, 우편으로 접수
라. 제출서류: 입학원서 소정양식 1부, 사진(3*4) 2매

모집정원 40명 **지원자격** 제주도민(성인)

등록금(수강료) 가. 등록비: 1년 200,000원
나. 입학계좌: 03-01-104459 제주은행(제주특별자치도향교재단)으로 입금

교육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2023.3.10.(금)~2023.12.08.(금)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시 간: 매주 금요일 14:00~16:00
다. 교육장소: 제주도 유림문화원 3층 강의실(제주시 광양2길 35번지, 이도1동)

주요 강의주제 - 유교의 성현과 도통 - 유학과 경전 - 유가·불가·도가
- 논어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성 - 유학에서 배우는 기본 윤리
- 맹자의 사상 - 문묘와 유교의 의례 - 문화유산답사

수상 및 시상 가. 수료: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교육시간의 2/3 이상 출석자)에게는 제주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향교재단 이사장 명의 선비 인증서를 교부함
나. 시상: 학업우수자에게는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상 (재)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이사장상 수여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재)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또는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lifelong.jejunu.ac.kr>) 참조 및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 (재)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 757-2249 FAX. 759-2249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754-2704~5 FAX. 702-5508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재)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이사장

春期 釋奠大祭 奉行案内

招請의 말씀

恒常 郷校 發展에 많은 關心을 보이시는 貴下께 眞心으로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旌義郷校에서 孔紀 2574年 (西紀2023年) 春期 釋奠大祭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公私多忙하시더라도 枉臨하시어 많은 聲援과 激勵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入齋日時: 孔紀 2574年 2月 8日(陽曆 2月 27日) 08:00
- 奉行日時: 孔紀 2574年 2月 9日(陽曆 2月 28日) 10:00
- 場 所: 旌義郷校 大成殿
- 獻 官: 初獻官 吳 怡勳 (제주특별자치도지사)
亞獻官 高 益秀 (남원지회 훈장)
終獻官 金 景鎬 (정의향교 감사)
東分獻官 康 熙八 (표선지회장)
西分獻官 玄 鳳守 (남원지회 훈장)
典 祀 官 玄 泰松 (표선지회 관임장인)
堂上執禮 玄 基原 (남원지회장)
堂下執禮 宋 心子 (여성회장)
祝 官 李 尙烈 (남원지회 위미분회장)

* 以下諸執事 (정의향교 관임장인)

問議電話 010-3693-1367 (典 校 高太五), 010-2746-2892 (儀典部長 宋文鎬)
010-3693-0606 (事務長 安在洙)

西紀 2023年 2月 日

旌義郷校 典校 高太五